

2008년 06월 27일 (금) 10:17 [뉴스시스](#)

## 대구시, 추경 2743억원 편성

【대구=뉴스시스】

대구시는 일반회계 1631억원, 특별회계 1112억원 등 당초 예산 규모보다 2743억원이 증액된 4조 5178억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12월 2008년도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 2007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 조정, 2008 국고보조금 변경분 반영, 당면현안사업과 법정·필수경비 부족분 충당 등이 추경 요인으로 발생됐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10% 예산절감을 통해 마련된 자원 일반 1036억원, 특별 195억원 등 1231억원을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투자한다.

[고유가대책](#)에 303억원, 지하철부채원리금상환에 일반 266억원과 특별 84억원, 투자유치 기반조성을 위한 SOC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382억원을 재투자 한다.

그밖에 당면현안사업에 대한 부족사업비와 정부로부터 추가 또는 감액 조정된 국비 및 지방교부세를 계상했다.

시정의 최우선을 침해된 지역경제회복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두고 유치기업 입지보조금 66억원, 지방기업고용보조금 17억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지원 10억원 등 SOC 확대에 340억원을 반영 했다.

또 고유가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 근로자,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해소와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통한 대기질 개선 등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지원 59억원, [천연가스버스](#) 보급 34억원, 서재리 지역난방설치사업 20억원, 태양열주택 보급계획 지원 3억원 등 고유가대책관련사업에 303억원을 투자한다.

2011 세계육상대회유치와 함께 대구가 예술과 공연문화 중심도시 추구를 위한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해 육상진흥센터건립 70억원, U대회스포츠센터건립 40억원, 문화재단설립기금 150억원 등 347억원을 계상했다.

노인 장기요양급여비 지원 107억원, 보육시설운영 60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교육 52억원 등 416억원을 지원한다.

당면 현안사업으로 4차순환도로(상인~범물)건설 100억원, 고산국도~무열로간 도로건설 10억원, 구안국도~칠곡2지구간 도로건설, 도시경관 중심축 디자인 공모 2억원, 대구의료원 의료장비 보강 9억원 등 341억원을 투자한다.

그밖에 지하철부채원리금상환 266억원(특별회계 포함시 350억원),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215억원, 범안로 재정지원 153억원, 진천천 정비 63억원 등을 반영했다.

특별회계는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에 1112억원을 편성했다.

이동국기자 [marisdy@newsis.com](mailto:marisdy@newsis.com)

<저작권©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스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